

국내·외 군사박물관과 사회교육

- 군사적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중심으로 -

金 容 男

(전쟁기념관 학예연구관)

1. 머 리 말
2. 군사박물관의 사회교육 실태
3. 한국 군사박물관의 사회교육 방향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4. 맺 음 말

1. 머 리 말

博物館(Museum)의 기능은 잘 알려져 있듯이 유물의 수집, 보존, 전시, 연구, 교육 등이다. 선조가 물려준 귀중한 유물을 잘 관리하여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박물관의 과제이자 사명인 것이다.

근래 선진국에서는 박물관의 능동적 사회참여로 그 활동범위를 넓히고, 대중매체와 정보과학의 적극활용 등으로 공공이미지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마케팅 개념의 도입과 함께 다양한 행사, 문화상품 개발 등 적극적으로 관

람객들을 끌어들이는 작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관람자를 위한 博物館’으로 나아가고 있다.

역사시대에 접어들어 戰爭은 민족의 흥망에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전쟁의 양상은 점점 파괴적이고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전쟁 당시 사용했던 아군과 적군의 문서, 무기, 장비, 시설 등의 유물과 유적들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軍事博物館(Military Museum)은 바로 이러한 軍史財¹⁾를 전시하고 있다. 이것이 다른 분야의 박물관이나 기념관과는 다른 점이다. 올바른 역사의식을 견지하고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인식하여 호국안보 의지를 배양하기 위해서는 군사재를 이용한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군사박물관이 중요하다.

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편의 연구가 이루어졌다.²⁾ 박물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우리의 인식이 깊어진 것은 선학들의

-
- 1) 李殷鳳, 「軍史財란 무엇인가」, 『軍史』 제26호, 國防軍史研究所, 1993, pp. 357-359 참조. 軍史財의 類目別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문서(문헌) 군사재 ① 주요문서-각종작전문서, 조직편성, 지휘관의 지시문서, 각종보고서, 국방정책 및 외교문서, ② 간행물-군사연구지, 군 발간물, 군사 도서, 군사교범, 군관계 미술품, 기타(군관련 간행물), (2) 무기 군사재 ① 고대 무기-도창·투척무기, 소총류·갑주·궁시, 화포, ② 현대 무기-소총·자동화기·포병화기, 장갑·로켓, 함선·항공기·핵무기, (3) 장비·비품 군사재 ① 개인장비-복식·휘장·침구·개인전투장구, ② 부대 장비-군기·차량·전투지원장비, 행정장비·기타, ③ 특별장비-특수장병(개인) 유품, 전공자 소지품, (4) 시설 군사재 ① 군사유적-전적탑·전적비·성곽·봉수, 기념동상·군사적지, 전적지·군 주둔기지·숙영지·군사시설물.
- 2) 김동선, 『유치원·초등학교 박물관의 교육적 실제』, 한국교육학회 교육철학연구회, '98연차학술대회, 1998. 김명련, 『초등사회과 역사분야의 박물관학습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남미선, 『박물관 교육적 활용에 대한 유아 및 초등교사의 인식 비교』,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박인순, 『박물관 체험학습을 통한 초등학생 문화재 감상지도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이미정, 『아동을 위한 박물관 교육서비스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참조. 김인희, 『박물관 교육의 정신사적 의미』, 『교육철학』 제18집, 한국교육학회 교육철학연구회, 1997. 박재광,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의 박물관의 역할』, 『학예지』 제6집 별책,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2000. 백승길, 『박물관 사회교육의 과제와 전망』, 제1회 경기도 박물관 세미나 발표문, 경기도 박물관, 1996. 송춘영, 『역사

연구에 힘입은 바 크다.

연구의 특징은 대부분 국내의 박물관 교육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³⁾ 그러나 대상 국가가 매우 국한되어 있고 연구도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까지 다루지는 못하였다.

또한 분야별 주제를 다룬 전문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연구는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戰爭史⁴⁾·軍事史⁵⁾와 관련된 군사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다룬 연구는 김영주의 ‘한국 군사박물관의 현황과 과제’⁶⁾를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지지 않는다.

수업에 있어서의 박물관 교육의 방안, 『고문화』,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제1회 학예연구회 발표논문 특집호, 1995. 안정애, 『사회교육기관으로서 박물관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유홍준, 『박물관 문화의 교육적 기능 : 전시와 교육이 분리되지 않은 길은 없다』, 한국교육학회, 1997. 이태호, 『현단계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에 대한 진단과 전망』, 『교육철학』 제18집, 한국교육학회 교육철학연구회, 1997 참조.

- 3)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 연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삼성미술문화재단, 『해의 미술관 프로그램 현황 연구(I)』, 삼성미술문화재단 현대미술운영실, 1994. 임종덕, 미국 박물관 교육의 현황과 그 교육적 의의, 『교육철학』 제18집, 한국교육학회 교육철학연구회, 1997.
- 4) 程士雄, 軍事史 研究方法論(I), 『軍史』 제24호, 國防軍史研究所, 1992, pp. 10-12 및 軍事史 研究方法論(II), 『軍史』 제25호, 國防軍史研究所, 1992, pp. 78-85 참조. 程士雄은 軍事史(Military History)는 軍事的으로 중요한 모든 사항의 변천을 총망라하여 취급하므로 戰爭史보다는 廣範圍한 素材를 取扱한다고 하였다. 戰爭史(History of Warfare)는 戰爭이 어떻게 遂行되었는가를 주로 다루는데 戰爭을 遂行하는 當事자들이 일차적으로 軍人들이기 때문에 軍事史 範圍內에 戰爭史가 속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戰爭이란 우리의 敵對者로 하여금 우리의 意志를 완벽하게 履行하도록 強要하려는 暴力行爲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 5) 程士雄, 軍事史 研究方法論(I), 『軍史』 제24호, 國防軍史研究所, 1992, pp. 7-61 및 軍事史 研究方法論(II), 『軍史』 제25호, 國防軍史研究所, 1992, pp. 7-36 참조. 程士雄은 ‘軍事史(Military History)란 歷史學의 한 분야로서 軍事의 歷史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軍事史는 歷史의 한 특수분야인 동시에 軍事學의 한 분야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軍事學이란 군사주체의 역사, 즉 軍事史의 지원을 받는 학문이라고 하였다.
- 6) 김영주, ‘韓國 軍事博物館의 現況과 課題’, 韓國大學博物館協會 第35回 學術講演會 發表文, 1992. 김영주의 연구는 주로 陸軍·海軍·空軍博物館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김영주의 연구는 韓國 軍事博物館이 當面한 課題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따라서 필자는 전쟁사·군사사에 관해 軍史財를 전시하는 박물관에 관심을 가져 보았다. 그러나 필자가 이 주제의 전반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어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군사박물관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필자는 박물관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것이 바로 사회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아닌가 생각해 왔다. 한국의 군사박물관들은 교육프로그램이 부재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실정이다. 필자가 군사·전쟁박물관의 문제 가운데 교육프로그램 개발 모색에 주목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여러 편의 연구가 있으나 분야별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까지 다루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분야별 주제를 다룬 전문박물관의 실정에 부합되는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아직까지는 미흡한 실정이며, 戰爭史·軍事史를 다룬 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도 전문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본 논문은 역사학습과 군사박물관의 교육적 특성을 연결시켜 청소년 및 성인들에게 전쟁과 군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역사의식을 높이고, 더불어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방안을 군사박물관 교육활동에서 언어보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군사재 중 실물자료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모색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필자는 2002년에 유럽 7개국의 군사박물관을 견학한 바 있다. 각 국의 박물관에서는 국민들에게 전쟁과 군사와 관련한 내용의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계층별로 교육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었다. 본 논문은 유럽 군사박물관 견학과 관련하여 박물관의 사회교육 방향을 검토한 것이다. 먼저 우리나라와 외국 군사박물관의 교육실태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다음은

하다. 戰爭紀念館과 관련한 서술에서 戰爭紀念館을 특히 6·25戰爭을 기념해서 건설되는 '紀念館' 성격이 짙어 一般博物館과는 구분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영주의 論文, p. 4). 戰爭紀念館은 一般博物館과는 다른 紀念館의인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6·25戰爭을 기념해서 건설된 것만은 아니다. 展示對象이 先史時代로부터 三國時代, 高麗時代, 朝鮮時代, 大韓帝國, 日帝強占期에 이르는 전쟁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6·25戰爭은 물론 越南戰爭에 국군이 참전하였던 것도 전시하고 있다.

군사박물관의 분석을 토대로 학습모형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절한 戰爭史 관련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는 어떠한 모델이 개발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2. 군사박물관의 사회교육 실태

博物館을 지칭하는 영어의 뮤지엄(Museum)·프랑스어의 뮤제(Muse'e)·독일어의 뮤제움(Museum) 등은 모두 고대 그리스어의 뮤즈(Muse) 여신에게 바쳐진 神殿 안의 보물 창고를 뜻하는 무세이온(Museion)에서 유래하였다.⁷⁾

우리나라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는 “박물관이라 함은 인류, 역사, 고고, 민속, 예술, 동물, 식물, 광물, 과학, 기술, 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하고, 이들을 조사·연구하여 문화, 예술 및 학문의 발전과 일반 대중의 문화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전문화된 박물관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에 이르러서이며, 이 때부터 박물관 활동의 가장 혁신적인 변천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당시 대개의 박물관은 비교적 규모가 작으나 광범위한 자료의 수집과 전시를 통한 종합박물관의 성격을 강화하였다. 과학의 진보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각 분야별 전문박물관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서도 군사 및 전쟁과 관련된 전문 박물관이 軍事博物館이다.

軍事博物館이란 전쟁과 군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 중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軍事財⁸⁾를 수집, 보존, 전시, 연구 및 교육을 목적으로

7) 이난영, 『박물관학입문』, 삼화출판사, 1996, p. 285.

8) 李殷鳳, 「軍事財란 무엇인가」, 『軍史』 제26호, 國防軍史研究所, 1993, pp. 357-359 참조.

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러한 군사박물관은 일반박물관이나 기념관과는 달리 고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군사재를 전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軍事財란 軍事史를 연구할 때 활용하는 자료를 말하며 軍事史와 軍事財는 종속관계에 있다. 戰爭史(History of Warfare)는 전쟁이 어떻게 수행되었는가를 주로 다루는데 전쟁을 수행하는 당사자들이 일차적으로 군인이기 때문에 軍事史(Military History) 범주에 속한다.⁹⁾

군사박물관은 박물관 자체로서의 교육적 기능인 전시, 자료에 의한 강좌, 강습회, 견학, 관람자에 대한 쾌적한 환경제공, 시민과의 커뮤니케이션 등의 활동을 포함하여, 고대로부터 현대까지의 각종 전쟁 당시 사용했던 아군과 적군의 각종 문서, 군사 무기, 군사 장비, 군사관련 시설 등의 전시와 軍史財¹⁰⁾에 대한 교육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1) 한국 군사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

한국의 군사박물관은 고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전쟁사·군사사를 정리하여 전시하고 있다. 군사박물관은 '전쟁기념관', '육·해·공군박물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등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형태로 존재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전쟁기념관, 육·해·공군박물관,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중심으로 사회교육 실태를 살펴보고 한다.

1) 전쟁기념관

전쟁기념관은 서울 용산의 옛 육군본부 자리에 1994년 6월 10일, 대지 35,000평, 연건평 25,464평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개관하여 우리나라의 고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쟁의 역사를 전시하고 있다.¹¹⁾

9) 程士雄, 『軍事史 研究方法論(1)』, 『軍史』 제24호, 國防軍史研究所, 1992, pp. 10-12.

10) 李殷鳳, 『軍事財란 무엇인가』, 『軍史』 제26호, 國防軍史研究所, 1993, pp. 357-359 참조.

전쟁기념관은 사회교육과 관련하여 ① 어린이 나라사랑 그림 그리기대회, ② 전국 학생 나라사랑 평화사랑 글짓기 공모, ③ 전쟁기념관 관람 감상문 공모, ④ 청소년대상 호국체험교실, ⑤ 교사대상 한민족대외항쟁사 강좌 등 5가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예연구부의 교육담당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 실시한 교육프로그램 분석을 토대로 보완하여 2003년도에 계획대로 교육 프로그램¹²⁾을 진행하고 있다.

전쟁기념관은 군사박물관으로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청소년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실시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세계적인 추세와 비교해 볼 때 일반 시민이 교육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다양한 계층별로 대상을 구분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2) 육군박물관

육군박물관은 태릉 육군사관학교에 위치하고 있으며, 1956년 육군장교단의 성금에 의해서 육군사관학교 부속기구로 설치되어, 1985년에 연건평 2,181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하여 육군박물관으로 정식 개관하였다.¹³⁾

육군박물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사관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고대사·현대사 교육'과, 일반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 '전시관 견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관생도들에게는 고대사 및 현대사에 대한 강의 4시간과 전시관 견학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전시관 견학 교육은 古代室, 현대실, 육사기념관 등을 관람한 후, 방산 대형 화포와 항공기들이

11) 전쟁기념사업회, 『한국 전쟁기념관 건립사(1997)』, p. 518 및 한국 전쟁기념관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warmemo.co.kr> 참조.

12) 전쟁기념사업회, 『2003, 사업계획』, p. 25, p. 85.

13)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陸軍博物館圖錄』(1998) 및 <http://www.kma.ac.kr>(한국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참조.

전시되어 있는 야외전시장,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승용차와 대형 銃筒類가 전시되어 있는 옥외 전시장을 돌아보도록 하고 있다. 일반 관람자들에게는 고대실, 현대실, 육사기념관, 야외전시장, 옥외전시장 등의 코스로 관람시키고 있다.

3) 해군박물관

해군박물관은 진해 해군사관학교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6년 해군사관학교 개교 30주년을 기념하여 설치되었다. 그 이후인 1990년에는 연건평 793평 규모로 증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¹⁴⁾

해군박물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해군 캠프’와 일반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 ‘전시관 견학’이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해군 캠프’ 프로그램은 매년 여름방학 중 100명씩 5회에 걸쳐 이충무공실, 해군해양실, 海士室 등 전시관 견학, 海洋史 관련 비디오 시청, 이충무공과 張保皋大使 활동관련 한국해양사 강의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관람자들은 박물관 직원의 안내로 이충무공실, 해군해양실, 海士室, 야외전시장 등에 대한 견학을 하며, 거북선 승선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4) 공군박물관

청주 공군사관학교에 위치한 공군박물관은, 1978년 발족한 공군기념관을 모체로 하고 있다. 1985년도에 공군사관학교가 청주로 옮기면서 공군박물관으로 정식 개관하게 되었다.

공군박물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형항공기·행글라이더대회’와 ‘전시관 견학’, 일반 관람자들을 대상으로

14) 해군박물관, 『海軍博物館圖錄』(1997) 및 <http://www.navy.ac.kr>(한국 해군사관학교 해군박물관) 참조.

한 ‘전시관 견학’등이다.¹⁵⁾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전시관 견학’ 프로그램은 매년 1회 개최되는 모형 항공기대회와 행글라이더 대회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 관람자들은 박물관 직원의 안내로 공군관, 특별전시관, 야외전시장 등에 대한 견학을 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전쟁기념관을 제외한 육·해·공군 군사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은 전시관 견학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단순한 전시관 관람 및 안내가 아닌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일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5) 인천상륙작전 기념관

인천상륙작전 기념관은 인천시 옥련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4년도에 연건평 543평 규모로 인천광역시민의 성금을 모아 설립하여 개관하였다.¹⁶⁾

상륙작전기념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없다. 그러나 한국자유총연맹의 위탁을 받아 인천광역시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인천시 관내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다.¹⁷⁾ 그 교육의 내용은 ① 민주사회와 시민의 참여, ② 통일을 준비하는 청소년의 자세, ③ 인천의 역사와 문화유적, ④ 전시관 견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외국 군사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

외국의 군사박물관들은 수세기 전부터 자신들의 역사를 빛낸 전쟁의 영

15) 김영주, 「한국 군사박물관의 현황과 과제」,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제35회 학술강연회 발표문, 공군사관학교 공군박물관, 1992, p. 3.

16)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기념관 안내』 소책자 참조.

17) 세부적인 교육내용은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지회 발행(2001. 11. 30), 『통일준비 민주시민 교육』 참조.

웅과 전쟁을 승리로 이끈 제왕들의 업적을 살핌으로써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잃지 않기 위해서 건립된 경우가 많다. 외국 군사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 실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현대사와 관련이 깊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군사박물관, 영국 임페리얼 전쟁박물관, 호주 전쟁기념관, 캐나다 전쟁박물관, 독일 드레스덴 군사박물관, 러시아 중앙 군사박물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미국 캘리포니아 군사박물관

미국 캘리포니아 군사박물관은 1991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설립한 군사 전문 박물관으로서 세크라멘토에 위치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의 공식적인 군사박물관이자 군사사 연구소로 개관하였다.¹⁸⁾

이 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軍事史 교육프로그램, 제2차 世界大戰史 교육 프로그램 등 두 가지이며,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캘리포니아 軍事史 교육 프로그램(The California Military History Educational Project: CMHEP)은 캘리포니아 州政府의 예산 지원을 받아 주내의 공립학교에서 이용할 학습도구로서 UCLA(University of California in Los Angeles)대학 등과 공동으로 개발한다.

이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는 학생들에게 미국 역사교육 내용 중 군대의 중요성과 군사사 분야에서의 캘리포니아가 수행했던 중요한 역할을 가르치는데 있다. 종합교육 계획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정한 내용과 성과기준에 의거 개발이 되며, 보충교재를 비롯하여 관련 홈페이지, 교사 학습지도 전략, 토의 과제 및 평가사항이 포함된다. 각 단원은 상호 연관성이 있도록 하였으며 최신 교수기법을 적용하여 주제에 대한 상식이 다소 부족한 교사들도 쉽게 지도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다. 또한 각 단원은 홈페이지 상에서 보급된 교재만을 사용함으로써 통합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교육할 수 있

18) <http://www.cmhep.org>(캘리포니아 군사사 교육프로그램) 참조.

도록 되어 있다. 추가적인 보충교재들은 현행 또는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줌으로써 주기적으로 추가할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 단원들은 캘리포니아에 관한 다양한 주제로 되어 있다.

다른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사 교육프로그램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용사들이 현재는 물론 미래의 세대들까지도 포함하여 일반 역사가, 군사사 담당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군사박물관측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여러 병과에서 근무한 참전용사들을 대상으로 전쟁의 경험을 구술 채록(採錄)하여 전쟁에 대한 사료를 발굴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는 캘리포니아 군사박물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UCLA(University of California in Los Angeles) 등과 연계하여 캘리포니아 군사사 교육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사용되어 캘리포니아주 내의 초·중·고교의 역사교육 보충자료로 활용된다. 참전용사들은 단지 구술을 통하여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회상을 전하면 되고, 박물관측은 참전용사 본인의 소중한 무용담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구술장소와 시간은 참전 용사가 편리한대로 선택할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군사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해 본 결과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와 군대의 중요성을 부각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 주의 역사를 가르쳐 캘리포니아 주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있다. 셋째, 참전용사들에 대한 명예 고양을 통해 그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 영국 임페리얼 전쟁박물관

영국 임페리얼 전쟁박물관은 런던 시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1946년에 개관하여 문화부 소속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다.¹⁹⁾ 이 박물관은 크게 청소년

19) Imperial War Museum Book, 2002, p. 17 및 <http://www.iwm.org.uk>(영국 임페리얼 전쟁박물관) 참조.

과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위주로 설명하고자 한다.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은 ①전쟁사 교육 프로그램, ②전격전 체험교육, ③시대별 주택 변천사 학습 프로그램, ④초등학생의 제2차 세계대전 교육 프로그램, ⑤참호 체험교육 프로그램, ⑥대학살 체험교육 프로그램, ⑦잠수함 승선 특별 프로그램 등 일곱 가지이며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쟁사 프로그램은 영국군이 참호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였는가에 대한 학습과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군의 활약상 및 제1차 세계대전(1914-1918)과 제2차 세계대전(1939-1945)에서의 국내전선의 전투현황에 대한 소개를 내용으로 한다. 나치 독일이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였는가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를 선택하도록 하고 조별 편성을 하여 전시실 관람과 각종 실물 전시품 및 문서류와 사진류, 영상자료 등을 감상토록 한다. 조별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담당관이 보고서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학교로 우송해 준다. 교육시기는 전반기나 후반기 중 1회 실시하며, 일일 2회에 걸쳐 1회 1시간 30분 동안 학습한다. 교육인원은 1회 16명에서 32명까지 한정하여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電擊戰(Blitz Krieg)²⁰⁾ 체험교육은 유치원생으로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습으로써 1회 30분씩 일일 10회 시행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으로부터 영국군이 공중기습을 당할 당시의 상황을 특수한 효과음과 영상음 등으로 구성된 체험실에서 학습을 하게된다. 그리고 연출가가 당시 상황을 실감나게 설명한 후 학생들의 질문사항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20) 육군본부, 『육군군사술어사전』, 1988, pp. 413-414 참조. 전격전(電擊戰, Blitz Krieg)이란 제1차 세계대전후 풀러(T.F.C. Fuller)와 리델하트(B.H. Liddle Hart)의 이론적 근거 위에서 후티어 戰術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奇襲, 速度, 火力의 優位를 바탕으로 敵의 중추신경을 마비시켜 조직력을 瓦解, 抵抗力을 박탈하는 速戰速決 戰法이다.

셋째, 주택변천사 학습프로그램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반기에 실시하는 학습으로써 1회 30분씩 일일 8회 2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1940년대 런던 시내의 주택모형을 관람시키는 것이다. 전시 주민들의 생활상 즉, 의·식·주 및 전쟁 기간동안 문인들의 활동상 등 다양한 전시품을 보면서 전쟁 당시 국민들이 어떻게 생활하였는가를 인식하게 하고 있다.

넷째,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반기에 일일 2회, 1회 1시간씩 35명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강의와 전시실 관람에 이어 당시 영국인들이 어떻게 전투를 하였으며, 국민들은 어떻게 생활하였는가에 대한 설명을 한다. 더불어 참전용사들의 증언과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여 당시의 상황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塹壕體驗 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반기에 일일 8회에 걸쳐 1회 30분씩 2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강의와 더불어 역할극을 관람하는 과정으로 편성되며, 주제는 전쟁 당시 야전병원 치료소에서 간호사가 부상병을 치료하는 내용이다. 참호 속에 들어가 전쟁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게 한다.

여섯째, 대학살 체험교육 프로그램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독일군에 의해서 수많은 전상자가 발생했던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참혹한 상황을 교육담당자가 강의하고 각종 전시 자료를 관람하게 함으로써 당시의 상황을 느끼도록 하고 있다. 그런 후에는 당시 전쟁에 참전했던 생존자와 대화를 나누는데, 여기서는 별도로 60개의 학습자료를 준비하여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 학습프로그램은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하며, 이 프로그램은 교사용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일곱째, 잠수함 승선 특별프로그램은 잠수함에 직접 승선하여 역할과 구성에 대하여 승무원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질의 및 응답을 하는 것이다.

영국 임페리얼 전쟁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해 본 결과 배울 수 있

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2차 세계대전에서의 영국군의 용맹성과 활동상을 소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군에 대한 신뢰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과거의 전시생활상을 소개함으로써 현재의 삶을 인식하게 하며, 미래의 또 다른 전쟁 발발에 대한 대비태세와 국방력의 중요성을 고취시키는데 있다. 셋째, 제1·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군이 패배한 전투상황을 소개함으로써 전투에서는 승리해야 한다는 강인한 전투의지를 고취시키고 있다.

3) 호주 전쟁기념관

호주 전쟁기념관은 세계 최대의 국립 전쟁기념관으로서 수도 캔버라에 위치하고 있으며, 1941년에 건립되었다.²¹⁾

교육은 전시장에서 전시할 수 없는 전시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시품을 보여주면서 교육담당관과 토의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흥미와 관심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역사적으로 주요한 인물들을 소개 하면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쉽게 적용이 되도록 연계되어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촉진학습 프로그램과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촉진학습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중학생 교육프로그램은 ‘濠洲人の 정체성’, ‘가정의 발견학습’, ‘제2차 세계대전 중 국내·외에서 발생한 사건 이야기’, ‘세계대전 당시 공군의 역할’이다. 둘째, 중·고교생 교육프로그램은 제1·2차 세계대전과 전쟁이야기, 호주 방어, 기술 혁명 프로그램이다. 셋째, 고등학생 프로그램은 호주·뉴질랜드軍 역사, 전쟁과 시, 역사적인 전시자료 소개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은 각 대상별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초·중학생용 프로그램의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21) <http://www.awm.gov.au>(호주 전쟁기념관) 참조.

초·중학생들에게는 주로 濠洲人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먼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호주 국민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싸웠으며, 전쟁기간 중 각 가정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였는가를 체험하게 한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가족 구성원들과 어린이들이 극복해야 했던 사건들도 교육하고 있으며, 더불어 여성들의 역할은 어떠하였는가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대전 당시 공군의 활약상을 소개하며, 이를 위해서 공군전시실 견학과 현지 공군부대를 견학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다.

중·고교생용 프로그램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로 제1·2차 세계대전 중 국가를 위하여 어떻게 싸웠으며, 전쟁 당시 상황은 어떠하였는가를 스스로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케 하고 있다. 또한 전쟁을 통해 자연과 과학기술은 어떻게 발전하였는가를 학습하는 프로그램도 구성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기술혁명 프로그램은 2001년도에 신설된 프로그램이다.

고등학생용 프로그램의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로 호주·뉴질랜드 군의 역사 및 전쟁 중에 제작된 시와 다양하고 역사적인 전시자료를 통하여 전쟁상황을 인식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호주 전쟁기념관 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해 본 결과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호주 국민들에게 정체성 확립과 올바른 역사인식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제1·2차 세계대전 당시 군의 전투상황을 소개함으로써 참전용사들에 대하여 감사함을 지니도록 하고, 군을 신뢰할 수 있는 자세를 갖도록 해 준다. 셋째, 제1·2차 세계대전 당시 어려웠던 생활을 소개함으로써 인내심을 가지게 한다. 넷째, 전시에도 문화발전을 위한 노력을 소개함으로써 스스로 문화국민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도록 하고 있다.

4) 캐나다 전쟁박물관

캐나다 전쟁박물관은 오타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3년 비미하우스

(Vimy House)라는 건물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²²⁾

전쟁박물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교육 프로그램과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학교교육 프로그램은 박물관 자료대여 프로그램, 교실수업 프로그램, 그리고 자율주제 선택 프로그램 등이며,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박물관 자료대여 프로그램은 자료를 요청한 학교에 1주에서 4주 동안 전시품(진품/복제품)을 대여하여 학생들에게 전시품을 통해 전쟁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확립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전시품은 박물관에서 직접 운송해 주는 방법과 학교에서 직접 가져가는 방법이 있다.

둘째, 교실수업 프로그램은 교육담당자가 군복을 착용(보병/간호사)하고 학생들에게 캐나다군이 수행한 주요 전투(비미리지 전투)를 소개하여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교육담당자는 교육 중 여러 가지 전시품들을 소개하면서 용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특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기도 한다. 더불어 학생들에게도 복식을 착용할 기회를 부여해 주고 참호를 파는 도구와 수류탄, 와이어 절단기 등을 소개하면서 직접 조사를 해 보는 학습을 한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인간 생명과 삶의 소중함, 그리고 캐나다군이 승리하였던 비미리지 전투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면서 교육을 종료한다.

학급단위 자율주제 선택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보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3가지 주제 즉, 북미대륙 전쟁과 세계대전, 그리고 자유를 위한 십자군 등의 주제를 선정하여 학습을 한다. 먼저 북미대륙을 위한 전쟁은 북아메리카에서 식민지 경쟁에 대한 학습 주제를 프랑스, 영국, 아메리카전쟁, 화약의 사용과 군인들의 삶에 대한 내용으로 학습을 진행한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캐나다군의 참전상황 프로그램의 학습 주제는 참호전쟁과 비미리지 전투, 소메 전투를 소개하고, 그리고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의 처절한 생활에 대한 학습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자유를 위한 십자군 전쟁에

22) <http://www.warmuseum.ca>(캐나다 전쟁박물관) 참조.

서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캐나다군의 참전자료를 학습하면서 총체적인 전쟁과 노르망디 上陸作戰, 기억해야 할 역사적 사건에 대한 주제로 학습을 진행한다. 이러한 교육에는 참전용사들이 참석하여 학생들과 대담하는 시간도 가진다.

교사 교육 프로그램은 박물관에서 전시품(진품, 복제품), 디오라마, 비디오, 복식, 화기, 시, 그림, 음악 등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학교교육과 연계한 교육을 지도한다. 특히 교사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전쟁 당시 캐나다軍의 활약상에 대하여 교육을 한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전시품 키트를 활용하는 데 이것은 성인이나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돕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교육자료는 탐구학습 지도시 교안 작성을 돕기 위한 추적활동과 답변서가 준비되어 있으며, 20여 개의 활동카드가 준비되어 호기심을 유발하고, 교안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100여 개에 달하는 질의응답서가 준비되어 있어 장차 학습시 예상되는 논쟁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아울러 제1·2차 세계대전에서 캐나다군의 참전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가 준비되어 학습활동이 진행된다. 이러한 키트는 유료로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캐나다 전쟁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을 분석해 본 결과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자유의 십자군으로 활동한 군의 자긍심 부여와 함께 국가와 군대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대군 신뢰도 함양 및 국민적인 단결의지를 북돋우고 있다.

5) 독일 드레스덴 군사박물관

독일 드레스덴 군사박물관은 구 동독 베를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와의 전쟁이 끝난 후인 1870년에 드레스덴 시에 건립되었다. 건립 당시에는 작센주의 무기와 장비를 보관하는 병기장이었으나 1897년에

이르러는 제1·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획득한 물품을 포함하여 약 500년에 걸친 군대 복식과 무기류 등을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하면서부터 군사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²³⁾

독일 드레스덴 군사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은 군사사를 독일 전체 역사의 일부분으로 소개하고 있다. 군대는 사회의 일부이며, 전쟁 중이나 평화 시에 정치, 문화, 경제 분야 등과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군사사교육, 군사제도 및 전술의 변화, U-Boat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사사 교육 프로그램은 사회의 일부로서의 군대의 역할, 군인들의 일상 생활에 대한 소개, 평화의 중요성, 전쟁상황 재현을 통한 소개 교육을 시키고 있다. 전시관을 견학한 후에는 소규모 학급단위로 토의를 한 후 전체토의를 하고 있다.

둘째, 군사 제도 및 전술의 변화 교육 프로그램은 독일의 군사제도, 미래 독일군의 역할, 전술의 변화에 관한 내용을 성인 및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시키고 있다. 이론 교육 후에는 소규모 집단단위로 전술토의를 한 후 전체토의를 하고 있다.

셋째, U-Boat 체험교육 프로그램은 U-Boat의 제원, 성능, 역할을 살펴본 후 토의를 한다. 그리고 잠수함을 탑승하는 기회를 부여한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들은 국가와 군대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전쟁으로 인한 피해 인식과 평화의 소중함을 잊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독일 통일 후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6) 러시아 중앙 군사박물관

러시아 중앙 군사박물관은 모스크바 시내 푸룬제 중앙 군사공원 지역내

23) <http://www.milhistmuseum.de>(독일 드레스덴 군사박물관) 및 *Militarhistorisches Museum Book 1~3*, Dresden, 2000 참조.

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하여 1995년 5월 9일 승전 50주년을 맞아 건립되었다.²⁴⁾

군사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은 세계강국으로서 승전(勝戰)의 역사와 상무정신(尙武精神)을 고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은 군사박물관의 학예연구관들이 담당하며, 특히 학교에 직접 나가 제2차 세계대전과 모스크바 전투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

교육프로그램은 청소년과 전역장병과의 대화, 군대에 소집되는 장병교육, 제2차 세계대전사 교육, 모스크바 전투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러시아가 승리한 자랑스런 역사와 자긍심 부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군사박물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²⁵⁾

첫째, 전역장병과의 대화 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을 교육대상으로 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군대와 군대생활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군에 대한 친근감을 느끼게 하며,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배양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둘째, 군대에 소집되는 장병들을 위한 교육은 계급별로 구분하여 ‘국가와 군대의 역할’, 그리고 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소개를 포함하여 군대생활에 대한 참고적인 내용을 교육한다.

셋째, 제2차 세계대전사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모스크바 전투는 대학교와의 교육협정 체결로 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전쟁 당시 러시아군의 활약상을 청소년들이 이해하고 자국의 역사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끼게 하며 전쟁이 발발했을 때 국가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나마 교육하고 있다.

24) 러시아, 『중앙군사박물관 도록』, pp. 2-3 참조.

25) 2002년 9월 26일, 러시아 중앙군사박물관 방문시 통역·안내를 담당한 김정기 육군대령으로부터 자료를 수집·정리한 것임.

3. 한국 군사박물관의 사회교육 방향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군사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은 군사박물관의 특성과 성격을 고려해 볼 때 여러 가지 유형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 외국 군사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자국 국민들의 정체성 확립과 올바른 역사 인식을 위한 프로그램, 제1·2차 세계대전 당시 자국군의 활약상과 참호 속에서의 체험, 국민들의 어려운 생활상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간접 체험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참전용사들의 무용담을 듣는 시간도 마련하여 참전 용사들에 대한 명예를 고양시키고, 애국 애족 정신을 함양시키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한국 전쟁기념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청소년 대상 ‘호국체험교실’ 프로그램은 전쟁기념관 관람, 전방 안보현장 답사, 군부대 병영체험 및 합정 승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교사대상 ‘한민족 대외항쟁사’ 프로그램은 언급하지 않았다. 청소년 대상 교육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체험해 볼 수 있는 ‘임진왜란 전적지 탐방’과 ‘6·25전쟁 전적지 탐방’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학습과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국내·외의 군사박물관 교육프로그램들을 분석·정리해 볼 때 한국의 군사박물관은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하겠다.

(1) 교육 프로그램 모형 제시

군사박물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역사성과 분단된 조국의 현실 등을 포함하여 군사박물관의 임무와 성격에 맞는

새로운 교육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외국의 군사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은 자국 국민들의 정체성 확립과 올바른 역사 인식을 위한 프로그램, 제1·2차 세계대전 당시 자국군의 활약상과 참호 속에서의 체험, 국민들의 어려운 생활상에 대한 체험, 그리고 전시에도 문화 발전에 노력과 관심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여 문화국민으로서의 위상을 확립시키는 프로그램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가 있으나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분야별 주제를 다룬 전문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며, 戰爭史·軍事史를 다룬 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 또한 빈약하다. 그 중 전쟁기념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호국안보 체험교실’ 프로그램과 교사대상 ‘전쟁기념관 문화교실’ 프로그램이 있을 뿐이다. 군사박물관 교육의 특성을 고려, 軍事財를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는 전쟁사 관련 교육 프로그램으로 호국정신 계승, 전적지 탐방, 군사 장비·무기 발달, 전시 생활·문화 이해 분야별로 구분하여 모형을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4개 분야 8개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언급한 프로그램 외에도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지만 8개

<표 1> 군사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모형

구분	호국정신 계승	전적지 탐방	군사 장비·무기 발달 이해	전시 생활·문화 이해
프로그램 유형	1. 대외 항쟁사 이해 2. 호국영웅 공훈 이해	1. 임진왜란 전적지 탐방 2. 6·25전쟁 전적지 탐방	1. 군사 장비 발달사 이해 2. 군사 무기 발달사 이해	1. 전시 피난생활 이해 2. 전시 대중문화 이해
대상	초·중·고교생	중·고교생/성인	중·고교생/성인	초·중·고교생/성인

프로그램으로 한정하였다. 교육 프로그램 참가 대상을 구분하였으나 각 교육 프로그램별로 교육내용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도 있겠다. 교육 프로그램은 박물관에서 별도로 시행하되 청소년들에게는 가능한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학습목표와 관련하여 고려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전후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우리 先祖들이 전쟁 당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했던 역사적 사건을 알려주고 호국 안보의식과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시켜 이를 통하여 평화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둘째는 전쟁 당시 선조들이 직면했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 저력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알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선조들의 국난극복 의지를 이해시키는데 있다. 셋째는 국민들에게 군의 필요성과 역할을 소개하여 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 넷째는 국가가 전쟁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조상들이 어떻게 대응하여 국가를 보전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는가를 알게 하는데 있다.

전쟁사 관련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1) 호국정신 계승

호국정신 계승에 대한 프로그램으로서 영국 임페리얼 박물관에서는 電擊戰 체험교육, 참호 체험학습, 대학살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호주 전쟁기념관의 경우는 전쟁과 徵集 프로그램에서 제1, 2차 세계대전 및 베트남전쟁 당시 한 가정이 겪은 체험학습과 군사적 경험을 체득시키고 있으며, 자유 주제로 참전용사와의 대담 시간도 편성되어 있다. 교실수업에서는 학생들에게 참호도구, 수류탄, 와이어 절단기 등을 직접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요전투에서의 캐나다군의 역할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 드레스덴 군사박물관에서는 군대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더불어 평화의 소중함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종합·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호국정신 계승에 대한 프로그램은 ① 對外抗爭史 이해 프로그램, ② 호국영웅 공훈 이해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 두 가지 유형에 대한 세부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對外抗爭史’ 이해 프로그램은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시대별로 주요 對外抗爭史에 대하여 이해시키는 정신적인 면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이다.

먼저 이 프로그램의 학습목표는 한민족의 성립과 발전과정을 이해시키고,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시대별 정치제도와 군사제도, 주요 전투와 전쟁의 교훈을 도출하여 호국의지를 북돋우게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기 위한 국방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다음은 교수 및 학습활동으로써 프로그램 진행은 먼저 시대별 對外抗爭史에 대한 강의를 한 후 선사시대부터 1945년 광복까지의 대외항쟁사를 전시하고 있는 ‘戰爭歷史室’을 견학하고, 이어서 역대 전쟁당시 우리 민족이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였는가와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VTR을 시청하게 한다. 그 다음에는 조별 주요 전투사례에 대한 토의를 하도록 한 후 전체 토의에서 조별로 발표하고 강사가 질의응답을 받은 후 마지막으로 소감문과 교육내용에 대한 설문지를 받고 교육을 종료한다.

둘째, ‘호국영웅 공훈’ 이해 프로그램은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시대별 주요 전투와 주요 인물의 공훈을 이해하는, 역시 정신적인 면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이다.

먼저 이 프로그램의 학습주제와 목표는 학생들에게 국가와 국방력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시대별 주요 전투와 그 전투에서의 주요 인물들의 업적과 공훈을 이해시킨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호국영웅에 대한 예우와 교훈을 되새기게 하여 국가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호국영웅들처럼

희생정신을 발휘하게 하는 호국정신을 복돋우게 하는 것이다.

다음은 시대별 주요 전투와 그 전투에서 혁혁한 공훈을 세운 호국영웅들에 대한 강의를 수강하게 한다. 이어 전쟁기념관에서 매월 한 번씩 진행되는 호국영웅 顯揚行事를 참관하고, 전사자 銘碑 앞에서 헌화를 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는 ‘顯忠院’을 방문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께 묵념하고, 전시실을 방문하여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이 담긴 발자취를 돌아보게 한다. 이어 역대전투에서 공훈을 세운 분들에 대한 자료를 배부한 후 조별로 주요전투에서의 호국영웅들의 활동내용을 조사하게 한다. 이어서 조별토의 후 전체토의에서 조별로 발표하고 강사가 질의응답을 받은 후 마지막으로 소감문과 교육내용에 대한 설문지를 받고 교육을 종료한다.

2) 전적지 탐방

전적지 탐방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준용할 수 있는 외국 군사박물관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군사박물관에서는 6·25전쟁시 참전했던 부대와 인물소개는 물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여러 병과에서 근무한 참전용사들을 대상으로 참전 경험을 구술토록 해서 그 내용을 채취하여 프로그램의 보충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호주 전쟁기념관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뉴질랜드군과 연합하여 전쟁을 치른 경험 소개를 비롯하여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전쟁 상황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캐나다 전쟁박물관에서는 주요 전투에서의 캐나다군의 역할 소개는 물론 자율 주제학습으로 북미대륙전쟁, 세계대전, 자유를 위한 십자군 전쟁 등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종합·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전적지 탐방분야 프로그램은 ① 임진왜란 전적지 탐방 프로그램, ② 6·25전쟁 전적지 탐방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세부교육 진행 계획을 <표 1>과 <표 2>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임진왜란 주요 전적지 탐방 프로그램은 중·고교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임진왜란 주요 전적지 탐방’이라는 주제로 실시한다.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당시 국내외 상황의 올바른 인식과 군사제도 등을 이해시킨다. 또한 임진왜란 당시 주요 전투지역 현장을 직접 탐방하여 체험하게 함으로써 국방력 강화 및 안보의식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교육내용은 임진왜란 관련 해당 전시실에서의 학습과 전적지 탐방, 그리고 당시 사용한 무기에 대한 체험학습 등으로 구성된다.

둘째, 6·25전쟁 전적지 탐방 프로그램은 중·고교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6·25전쟁 전적지 탐방’이라는 주제로 실시된다. 이 프로그램 진행은 6·25전쟁의 올바른 이해에 대한 강의, 비무장지대 인근 전방부대 견학, 병영생활 체험 그리고 주요 전적지를 탐방함으로써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이해하고 안보의식을 고취하는데 있다.

3) 군사 장비·무기 발달 이해

군사장비 및 무기 발달에 대한 프로그램으로서 미국 캘리포니아 군사박물관에서는 제1·2차 세계대전, 베트남전쟁, 걸프전 당시 사용했던 항공기·함정은 물론 각종 장비와 과학기술 발달에 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영국 임페리얼 전쟁박물관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시품 소개와 참전 용사와의 대화시간이 있으며, 호주 전쟁기념관의 경우 기술혁명 프로그램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연과 과학기술 발전사향, 특히 항공 및 통신분야 체험학습 후 보고서 작성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독일 드레스덴 군사박물관에서는 제1·2차 세계대전중 활약했던 잠수함을 승선해 보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종합·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군사장비 및 무기 발달 교육 프로그램은 ① 군사 장비 발달사 이해 프로그램, ② 군사 무기 발달사 이해이며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사 장비 발달사 이해 프로그램은 중·고교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군사 장비 발달사 이해'라는 주제로 역대 전쟁과정에서 사용했던 장비와 장비 발달사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써 先祖들의 지혜로움을 이해하고 전쟁에서 장비의 중요성과 장비 개발의 필요성을 체득시킬 수 있다. 먼저 이 프로그램의 학습주제와 목표는 학생들에게 역대 전쟁과정에서 당시 사용했던 석기·철기·병기제작 과정을 이해시키고 실제 장비를 조작해 봄으로써 장비발달사를 이해하게 한다. 그리고 장비발달과 운용과정을 통하여 先祖들의 지혜로움을 이해하게 하며, 전쟁에서 장비의 중요성과 장비개발의 필요성을 체득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장비의 발달을 통해 국방력이 증강된다는 차원에서의 이해도 증진시킬 수 있다.

다음은 장비개발의 필요성과 장비 변천과정에 대한 강의에 이어 역대 전쟁에서 사용한 장비를 전시하여 장비별 제작과정과 운영방법을 소개한다. 그런 후 조별 견학 후 장비운영 방법에 대하여 조별로 지정, 발표하게 하며 더불어 향후 장비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하게 한다. 조별토의를 마친 후에는 전체토의에서 조별로 지정한 주제를 발표하고, 강사가 질의응답을 받은 후 마지막으로 소감문과 교육내용에 대한 설문지를 받고 교육을 종료한다.

둘째, 군사 무기 발달사 이해 프로그램은 중·고교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군사 무기 발달사 이해'라는 주제로 역대 전쟁과정에서 사용했던 무기의 종류를 이해하고, 당시 사용했던 무기를 직접 운용해 봄으로써 무기 발달사를 이해하게 한다. 그리고 무기발달과 운용과정을 통해서 先祖들의 지혜로움을 이해하며,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무기개발의 필요성과 국방력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먼저 이 프로그램의 학습주제와 목표는 학생들에게 역대 전쟁과정에서 당시 사용했던 무기를 이해시키고, 실제 무기를 조작해 봄으로써 무기발달사를 이해하게 한다. 그리고 무기발달과 운용과정을 통하여 先祖들의 지혜로움을 이해하게 하며, 전쟁에서 무기의 중요성과 새로운 무기개발 등으로

국방력이 증강된다는 차원에서 그 필요성을 체득하게 한다.

다음은 교수 및 학습활동으로써 프로그램 진행은 먼저 무기개발의 필요성과 무기들의 변천과정에 대한 강의,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역대 전쟁에서 사용한 무기들을 전시하여 무기별 제작과정과 조작요령 소개, 조별 견학 후 무기 운영방법에 대하여 실습을 하게 한다. 그런 다음 사격장으로 이동하여 최신무기에 대한 사격장면을 체험하게 한다. 더불어 향후 무기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하게 하여 신무기 개발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조별 토의를 마친 후에는 전체토의에서 조별로 지정한 주제를 발표하고 강사가 질의응답을 받은 후, 마지막으로 소감문과 교육내용에 대한 설문지를 받고 교육을 종료한다.

4) 전시 생활·문화 이해

전쟁과 생활·문화 이해에 대한 프로그램으로서 영국 임페리얼 전쟁박물관에서는 戰時 주민들의 생활상을 소개하고 주거생활 및 복식과 전시 문화 활동에 대한 내용, 연출자에 의한 당시 생활상 체험담을 소개하고 있으며, 호주 전쟁기념관에서는 ‘전쟁(戰爭)과 시(詩)’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쟁 중 작성된 시집 낭독을 통한 전쟁상황 인식 및 전쟁시(戰爭詩)의 내용을 통해 호주인들의 전쟁 경험을 소개하고 있으며, 전쟁 당시 여성의 역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캐나다 전쟁박물관에서는 교육담당자가 직접 군복과 간호사복을 착용하고 복식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 소개는 물론 학생들에게도 복식을 착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를 종합·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전시 생활·문화 이해 교육프로그램은 ① 전시 피난생활 이해 프로그램, ② 전시 대중문화 이해이며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시 피난생활 이해 프로그램은 초·중·고교생 및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전시 피난생활 이해’라는 주제로 6·25전쟁 발발 배경의 역사를

이해하고, 전쟁 당시 열악한 국민들의 삶과 당시 의식주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직접 체험해 보고, 그 당시 음식을 만들어 먹어보기도 한다. 또한 선조들의 삶의 형태와 현재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전시생활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며 당시 문화를 인식하게 한다.

먼저 이 프로그램의 학습주제와 목표는 교육생들에게 6·25전쟁과 국민들의 주거생활에 대한 강의, 실제 관련 전시생활실을 견학해 봄으로써 전쟁 당시 어려웠던 삶을 이해하게 한다. 의식주와 관련된 교육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발달 상황을 단계별로 이해하고, 선조들의 삶의 형태와 현재의 삶을 이해함으로써 근검절약정신을 복돋울 수 있는 내용이다.

다음은 6·25전쟁 당시 상황에 대한 강의와 그 당시 어려웠던 국민들의 생활에 대한 전시실 체험을 하게 한다. 또한 전쟁 당시 먹었던 음식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직접 만들어 먹어보기도 한다. 그런 다음 조별로 음식을 만들어서 제출하고, 전체토의를 할 때는 강사가 질의응답을 받은 후, 마지막으로 소감문과 교육내용에 대한 설문지를 받고 교육을 종료한다.

둘째, 전시 대중문화 이해 프로그램은 초·중·고교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전시 대중문화 이해’라는 주제로 6·25전쟁의 발발 배경과 전쟁 당시 유행했던 문화를 소개함으로써 당시의 시대상을 이해하게 한다. 또한 전쟁 당시 불려졌던 음악과 시 또는 소설을 작성하면서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고, 문화의 발달과정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구분하여 이해시키며, 선조들의 문화생활을 기초로 하여 더욱 발전된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게 한다.

먼저 이 프로그램의 학습주제와 목표는 교육생들에게 6·25전쟁 발발 배경의 역사와 전쟁 당시 유행했던 문화를 소개함으로써 당시 시대상을 이해하게 한다. 또한 전쟁 당시 불려졌던 음악과 시 또는 소설을 작성하면서 간접 체험토록 하며, 문화의 발달과정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구분하여 이해하게 한다. 그리고 先祖들의 문화생활을 기초로 하여 현재보다도 더욱 발전된 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음은 교수 및 학습활동으로써 프로그램 진행은 먼저 6·25전쟁과 문화생활에 대한 강의, 전쟁음악과 전쟁시 감상 및 소설, 시에 대한 자료를 배부한 후 가사 내용을 분석하고 시대별로 대중문화 발달단계를 비교하여 조별로 작성토록 한다. 그런 다음 조별로 발표하고 전체 토의시에는 강사가 질의응답을 받은 후 마지막으로 소감문과 교육내용에 대한 설문지를 받고 교육을 종료한다.

(2) 전쟁사 관련 체험교육 프로그램 모형 제시

군사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은 군사박물관의 특성과 성격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유형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외국 군사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군사박물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개발한 프로그램 모형은 4개 분야 여덟 가지를 제시해 보았다. 그 중에서도 戰爭史 관련 체험교육 프로그램 모형으로써 조선시대 임진왜란과 관련된 주요 전적지 탐방 프로그램과 현대분야의 6·25전쟁과 관련된 주요 전적지 탐방 프로그램의 모형을 제시하면 <표 1>, <표 2>와 같다.

1) 임진왜란 전적지 탐방 프로그램

임진왜란 주요 전적지 탐방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실시 단계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이 프로그램은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임진왜란 주요 전적지 탐방’이라는 주제아래 강의와 전시실 견학, 체험식 교육으로 3박 4일 동안 6단계로 나누어 <표 1>과 같이 진행된다.

제1단계는 임진왜란 전공 교육담당자에 의하여 당시 조선의 혼란한 정국과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가들의 상황, 임진왜란 3대첩과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 그리고 당시 주요 전적지인 행주산성과 시설물을 견학하고 마지막

<표 1> 임진왜란 전적지 탐방 교육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 의 -임진왜란사/주요전적지/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실 견학 -주요병기/장비/VTR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적지 탐방 -행주산성 -주요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래식 병기 사격시연 -활/창/조총 -병기조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주산성 전투상황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토의/평가 교훈도출

으로 임진왜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강의를 한다.

제2단계는 전시실 견학을 통하여 당시 사용했던 재래식 병기와 장비 등의 전시품들을 보면서 교육담당자가 병기 및 장비 조작요령에 대하여 설명한 후 교육생과 상호 토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 다음 주요 병기 및 장비 조작방법은 VTR을 보면서 보충설명을 한다.

제3단계는 전적지 탐방단계로서 행주대첩 장소인 행주산성과 그 주변의 주요 성곽 및 시설물을 견학한다. 이후 강사는 현장을 답사하면서 당시의 전황, 즉 왜구들이 공격한 상황과 조선군이 방어한 위치, 그리고 이 지역에서 전투상황 등을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제4단계는 임진왜란 당시 사용했던 재래식 병기에 대하여 시범 사격을 해보는 체험식 교육을 진행한다. 강사는 시범사격 전에 주요 병기인 활, 도검, 창 등의 장비에 대한 제원과 성능, 그리고 제작방법 등에 대하여 무기 제작자를 초빙하여 설명한 후 교육생들이 직접 활을 쏘아보고 무기와 장비를 조작해 보는 체험식 방법으로 진행한다.

제5단계는 조별로 임진왜란 3대첩 중의 하나인 행주산성전투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전술토의를 하는 단계이다. 먼저 강사는 세부적인 전투상황에 대한 내용과 전투 요도를 준비하여 강의를 하고, 강의 후에는 전투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강사와 질의응답식으로 현장교육을 진행함으로써 당시 전투 상황을 체험하게 한다.

제6단계는 토의 및 평가단계로서 조별로 전투상황에 대한 현장 체험을 수행한 후 이를 바탕으로 공격 및 방어위치와 전술형태, 그리고 무기 사용 등에 대한 전체토의를 통하여 임진왜란에 대한 전투상황을 폭넓게 이해하게 함으로써 임진왜란에 대한 교훈을 깨닫게 한다. 토의가 종료되면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내용과 실제 교육을 통하여 느낀 내용에 대하여 소감문과 설문지를 작성함으로써 다음 교육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기대되는 효과는 첫째, 임진왜란 이전 조선 정국과 국제관계의 포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7년여 동안 일본에게 민족적인 참화(慘禍)를 당한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인식시킬 수 있다. 둘째, 전적지와 주요 시설물을 견학하고 주요 병기 및 장비의 조작요령과 시연(試演), 그리고 행주대첩에 대한 전투 상황에 대한 현장 체험학습을 함으로써 당시의 전투상황에 대한 교훈을 깨닫게 할 수 있다.

2) 6·25전쟁 전적지 탐방 프로그램

6·25전쟁 주요 전적지 탐방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실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 프로그램은 중·고교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6·25전쟁 전적지 탐방'이라는 주제로 강의와 전시실 견학과 현장 체험학습으로 3박 4일 동안 6단계로 나누어 <표 2>와 같이 구성된다. 이 프로그램은 전쟁기념관에서 청소년 호국 체험교실에서 병영생활 체험과 전방부대를 견학하는 내용을 보완하여 교육생들이 실제 전적지를 탐방하고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제1단계는 6·25전쟁 전공 교육담당관에 의하여 조국광복 이후부터 38도선 확정과 그 이후 6·25전쟁의 발발배경, 주요 전적지에서의 전투과정과 당시 사용했던 주요 무기 및 장비에 대한 강의를 한다. 그 다음 주요 전투에 대한 VTR을 시청한다.

<표 2> 6·25전쟁 전적지 탐방 교육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 의 -6·25전쟁사/ 주요전투 현황 •VTR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실 견학 -주요무기/ 장비 -전장체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적지 탐방 •참호구축/ 매복체험 •화생방 공격 시 대응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무기 사격 시연 •개인화기 사격/장비 조작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별 체험학습 -분대전투 종합훈련 •참전용사와 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도의/ 평가 •교환도출

제2단계는 전시실 견학을 통하여 당시 사용한 주요 무기와 장비, 복식과 주요 전투상황에 대한 모형과 다양한 전시자료들을 보면서 흥미롭게 교육을 진행한다. 그리고 6·25전쟁 당시 동부전선에서 1개 소대가 전투하는 모습을 실감있게 재현한 전장체험실에서 6분동안 당시 전투상황을 체험하게 한다.

제3단계는 전적지 탐방과 참호구축 및 매복 체험학습 단계로써 먼저 전방부대로 이동, 일일병영 입대 신고를 한다. 그 이후 철책선 도보행군을 하면서 전방부대 장병들의 근무실태를 체험하게 한다. 그후 비무장지대 내로 장병들이 진입하는 모습을 직접 견학하게 하여 분단의 현장을 실감하게 한다. 그리고 각 개인이 직접 참호를 구축해 보고, 그 곳에서 1일 매복근무를 해보는 체험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적의 화생방 공격시 대응하기 위한 방독면 착용과 화학작용제 살포시 응급처리 요령에 대한 체험학습도 진행한다.

제4단계는 주요 무기에 대한 시연단계로써 부대사격장에서 개인화기 및 기관총 사격 시연을 하면서 간접 체험하게 한다. 그런후 조별로 학급을 편성하여 개인화기 사격술 예비훈련 및 영점사격을 해보는 체험학습도 하게 된다.

제5단계는 조별로 학급을 편성하여 분대규모 전투시 전술종합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실습하는 체험단계이다. 교육이 종료되면 참전용사와 전투상황에 대한 대화의 시간도 마련하여 당시 전투상황을 간접 체험하게 한다.

제6단계는 토의 및 평가단계로써 조별로 전투상황에 대한 역할을 수행한 후 전체토의를 통하여 6·25전쟁에 대한 전투상황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강사는 질의 응답내용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교육에 대한 소감과 설문지를 작성토록 한다.

특히 설문지 작성시 고려할 요소가 있다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내용과 실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느낀 점을 비교하여 작성토록 하는 것이다. 작성된 설문지는 다음 교육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설문지 작성이 종료되면 국군장병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마음이 담긴 위문편지를 쓰도록 한다.

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첫째, 6·25전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튼튼한 국방력만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교훈을 깨닫게 할 수 있다. 둘째, 전쟁으로 인해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인식케 하고 안보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마음자세를 확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4. 맺 음 말

외국의 군사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은 자국 국민들의 정체성 확립과 올바른 역사 인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선진 문화 국민으로서의 위상을 확립시키는 방향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군사박물관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은 외국 군사박물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비교해 볼 때 이렇다할 프로그램이 없으며 또한 체계적으로 운용되지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우리나라 軍事博物館에서 사회교육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教育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필자가 제시한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특별히 전쟁사와 관련된 체험교육

을 위해서는 임진왜란과 6·25전쟁 전적지 탐방 프로그램이 있다. 시대별로 차이가 있는 두 가지 교육모형을 제시한 이유는 우리민족이 수많은 대외항쟁의 역사 중에서 조선시대의 임진왜란과 현대의 6·25전쟁의 교훈을 일깨우기 위해서이다.

위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 이외에도 계층별로 다양한 사회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들은 계속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종합되어 체계화될 때 비로소 군사박물관은 전문박물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할 수 있으며,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군사박물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원고투고일 : 2003. 7. 10, 심사완료일 : 2003. 8. 4)

주제어 : 군사박물관, 전쟁사, 군사재(軍史財), 군사교육 프로그램, 전적지탐방

K C I

<ABSTRACT>

A Study on the Educational Programs of the Military History Museums

Kim, Yong-Nam

Museums have currently been collections of data on history, art, folk material and natural science. Museums conserve and exhibit these data as well as educate students with the data. With the effective use of the data, the educational function of a museum is enlarging. Education in the museum should be a dynamic and flexible one as much as possible, and provide the students with a unique experience by utilizing the collections to meet the needs and interest of viewers. The museums play a key role as the place of the citizens' moral education based on the history of a common nationality. The museums also give the students an opportunity to be reminded of the history of the past and the meaning of the fatherland. The museums also give youths and adults a chance to recognize the existence of the fatherland. In addition, most of the museums in history education have focused on the exhibition function, and have not played a role as a social education institu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recognition of the educational function of a museum, and to develop the types of the Experience Training Programs related to the Military History Museum. The data for research were obtained by referring to sundry records, website, and visited military museums in Europe from september 25 to October 10, 2002.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Military Museum, eight types of the Experience Training Programs in four fields

were developed. The types are shown on the table below.

The Types of Experience Training Programs related to the Military Museum

Fields	The Succeeding of the Spirit of National Defense	The Visit on the Old Battlefields	The Development of Military Equipment and Weapon	The Development of the Wartime Life and Culture
Types of Program	1.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of Resistance to Foreign Countries 2. Understanding of the Merits of War Heroes	1. Visit on the Old Battlefields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2. Visit on the Old Battlefields during the Korean War	1.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of Military Equipment Development 2.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of Military Weapon Development	1.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of the Wartime Lives of Refugees 2.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of the Wartime Mass Culture Development

Key Words: Military History Museum, War History, Military History Artifacts, Military History Educational Program, Battlefield Tour

K C I